

KREI리porter 전남지회 간담회 결과

전남지역 리porter

기록자: 남 양 완

일 시	2016.11.29.(화) 11:00~14:30	장 소	(주)미실란(전남 곡성)
참 석 자	총 17명 - 원내: 김동원 조사고객팀장, 김미리 주무원 - 원외: 김옥순, 김종근, 나종주, 남양완, 노웅곤, 박선정, 박향숙, 선병진, 신규호, 오형동, 이동현, 이명철, 주양호, 한정식, 홍창수		

1.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1:30	6차산업 사례 발표	이동현
11:30~11:40	현장교육장 현판식	(주)미실란
11:40~12:30	점심식사	미실란밥cafe 반하다
12:30~14:30	간담회	

2. 회의 내용

○ 리porter 현장교육장 현판식

- 현장교육장 선정
 - 신입직원 및 외국 연수생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해 현장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현장교육장 현판식 개최
 - 2016년 11월 대표농가에서 개최(땅강아지사과밭(11.8.))
 - 다우리농장(11.21.), 미실란(11.29.)

○ 농업회사법인 (주)미실란 소개

- 미실란은 발아현미, 백미, 미숫가루, 떡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재료는 재배 업체와의 계약을 맺어 협의 하에 쌀 가격을 결정하고 농협보다 4~5천 원 이상 책정하고 있음.
-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적 수익 없이는 3~4년이면 다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있음. 그러한 귀농인과 소규모 생산자를 모아 ‘Farmers Camp’ 를 신설하였으며 각자 조금씩 키워 생산한 농산물을 한데 모아 판매하

고, 체험 및 교육 등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며 상생과 동반성장을 모토로 발전해나가고 있음.

- 국가지정 기업부설연구소를 최초로 인증 받았으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농업회사법인을 최초로 등록하여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상기시키는 경영철학을 가짐.
- 주 상품은 온라인을 통해 70%이상 판매되며, 2015년 10월 오픈한 밥 카페의 매출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성공적인 6차산업화를 실천하고 있음.
- 6차산업은 정부의 지원이나 벤치마킹이 아닌 농가만의 특색을 살리고 기본을 다진 상태에서 하나씩 넓혀나가야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10년 동안 896개 품종을 심어 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원료 생산을 넘어 기능성 가공식품소재로서의 활용, 즉 미숫가루와 같은 기능성식품 분말화 또는 기능성화장품 소재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중임.

○ 리포터 운영 고도화 추진경과 설명

- 리포터 운영시스템 및 제도 정비
 - 목적: 리포터 운영 7년차를 맞아 리포터가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정책 여론 주도그룹’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

구분	내용
① 리포터회 회칙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포터 회원 자격과 선정, 임무에 대한 정의 - 총회, 운영위원회 기능 등 리포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시 - 운영위원회 보고(3.25.), 원장 승인 후 시행(2016.4.1.일자)
② 기수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단위 기수제 도입, 기존회원 준회원으로 지속적 관계 유지 - 2기 회원 선정: 활동 실적이 우수한 1기 회원 40% 중 참여의향이 있는 58명을 포함, 원내추천 등 현장 전문가 200여명 선정 추진(내년 3월까지) - 2기 발대식 개최(안): 2017년 7월 초, 신규 회원의 만남 등 추진
③ 사랑방사이트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15.12.~2016.2. - 반응형 웹 구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 리포팅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 - 홈페이지 기능 개선,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연동 확대 등

- 현장자문단 운영 방안 마련
 - 목적: 리포터의 활동 영역을 넓혀 연구과제 발굴과 성과확산, 교육 등에 활용을 확대하고 현장 맞춤형 연구 수행 지원을 강화

구분	내용
① 현장연구자문단	- 농업 분야 또는 품목의 대표성을 갖는 농업인 20명 선정 - 연구 성과확산 자문(반기 1회), 보고서 평가, 현장연구과제 발굴 등 자문 - 자문수당 지급(회의참석자 2호 기준 적용)
② 현장멘토링	- 리포터를 그룹핑해 관련 연구자와 1:1 또는 1:多 매칭 - 멘토 Pool 공지(10명)⇒ 연구자 멘토 신청⇒ 멘토링 지원 - 전화면담, 직접자문, 현장방문 지원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
③ 현장교육장	- 리포터 농가 중 현장교육에 적합한 곳 10곳 선정 - 연구원 교육프로그램 활용(경영지원실 연계), 연구자 현장조사 거점 활용 - 현장교육장 현판 제공, 자문수당 지급(회의참석자 2호 기준 적용)

○ 11월 현장의 소리 논의

- 우리 지역은 전기료를 20만원씩 지원받아 7~8월 한여름에는 마을회관에 모여 앉아 에어컨을 켜며 공동생활을 하고, 마을단위 반찬사업과 텃밭 가꾸기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노인에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어 우리 지역 노인복지는 만족스러운 편임.<나종주, 전남 화순>
- 마을회관, 경로당 등 지자체의 주도로 운영되는 시설 외에 마을 공동체 사업이 드문 편임. 목욕탕,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교통편을 지원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균형 있는 식단 보급, 마을공동 텃밭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해주기 바람.<배병열, 광주 광산>
- 1995년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농지에 한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체결하면 효력을 가질 수가 있었으나 1995년 이후 매매 농지는 해당지역 농어촌공사 지사에 가서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번거로움은 물론 10여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농업인의 불만이 많음.<주양호, 전남 장흥>
- 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 노인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박선정, 전남 완도>
- 가정도우미 한명이 세 가족을 시간을 정해 돌아가면서 돌보고 있어 필요한 제 때에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도우미 선정과정에서도 자격증 소지 등 규제를 엄하게 해야할 것임.<남양완, 전남 고흥>
- 유기농으로 구절초를 4~5만평 생산하였는데 힘들게 유기농을 한 만큼의 보상이 없어 영농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음. 유기농이란 브랜드 가치만 있을 뿐 높은 가격에 판매되거나 소비자가 꼭 찾는 것은 아니라 최근 남편이 하는 전복어업을 도와 전환을 할 고민을 하고 있음.<박향숙, 전남 완도>
- 가을비가 많이 와 배추농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절임배추를 만들려 외국인근로

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 고소득제품이 무엇일지 고민스러운 시기임.<이명철, 전남 해남>

- 공공비축미 수매가를 최고 4만5천원으로 고지하였는데 농협에서는 가격결정을 못하고 있음. 영광군에서는 공공비축미 수매가의 차액만큼 군에서 보장해주고 있는데 보성군에도 이를 건의해볼 생각임.<선병진, 전남 보성>
- 현재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입농산물 70~80%는 GMO농산물일 것임. 소비자는 값싼 농산물을 선호하지만 근본적인 영향평가 및 안정성에 대한 결과 없이 소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식품안전처에서 최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GMO농산물 안정성 검사 및 연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임.<선병진, 전남 보성>
- 농협 조합원 중 IMF때 연대보증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현재 긴급한 일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분들이 많음. 시중은행과 달리 농협은 그 지역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농업인이고, 농기계 구입 등 긴급성이 있고 수요가 높은 소규모 자금을 신용평가 없이 또는 절차를 줄여 단기대출서비스로 지원해주면 좋겠음.<신규호, 전남 곡성>
-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블루베리가 선정되었는데 실제 피해를 입어 폐원하는 농가를 지원한다기보다 연 3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5~6천만 원 하는 폐원보조금을 받기 위해 나무를 뽑고 옮겨 심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감독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폐원하는 곳의 나무를 실제 처분하였는지 철저히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2012년도 이전에 보조를 받아 식재한 농가는 그 보조금을 반환하고 폐원 지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한정식, 전남 담양>

3. 이모저모

